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추진기조와 과제

김동선 | 경기대학교 교수 | kds@kgu.ac.kr

I. 들어가는 말

끊임없는 반목과 대결이 남북 분단 70여 년 동안 지속되고 있다.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 상태에서 북한은 우리에게 정치·군사적인 경계대상임과 동시에 통일한반도를 함께 건설해 나가야 할 동반자이다. 고착된 분단 상황이 장기화되어 갈수록 남북 주민들 간의 이질감과 상대적 박탈감이 상대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서로의 이데올로기적·문화적 그리고 경제적인 차이에서 오는 갭(gap)을 극복하고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떨어진 시간보다 몇 배의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통일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후 동서독 간 이질감과 격차를 해소하는 데 최소한 한 세대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독일의 통일과정과 현재의 모습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우리에게도 요구될 격차 해소에 소요되는 시간들을 단축하기 위한 최선책은 통일 후의 과제가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실행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통일시대를 미리 준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그만큼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고 끈기 있는 공존의 실천 의지를 통해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하다.

분단구조상 겪어야 하는 대내외적인 불안정성과 복잡성에서 벗어나 ‘통일한국의 시민’으로서의 자유와 인권과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통일한반도 실현’의 당위성, 필연성 그리고 필요성을 갖는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대북·통일 정책의 변화로 인한 연속성 미흡으로 남북갈등뿐 아니라 남남갈등마저 야기되고 있다.

한반도문제는 비단 남북 간의 문제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영향에 의해서 한반도의 긴장완화 혹은 위기감과 혼돈 수위가 좌우되기도 한다.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총체적으로 악화된 위기상황에서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확고한 의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을 이루는 방법에 있어서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한반도 민족통일의 의지는 남북한이 통일된 하나의 목소리로 대외적으로 알려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 북한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단절국면의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남북 간의 스포츠 교류협력이 지금까지 한반도의 탈 경색국면을 위해 선제적 역할을 해 온 바와 같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대북정책은 강경하되 '소프트파워'를 발휘할 수 있는 스포츠 교류를 다시 재개해야 한다. 북한이 '대화의 장에 나올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성공적인 교류의 성사와 실패 또한 하나의 통일과정 선상에 있는 현상이다.

북한에 대한 제제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가장 강력한 수단(powerful lever)이었다면,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한반도통일을 위한 가장 비용 실효적인 수단(cost effective means)이 될 수 있다.¹⁾

II.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스포츠 교류협력의 필연성

사회문화분야의 교류사업이 비교적 정치·군사적 환경 변화에 영향을 적게 받는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보인다. 다만,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 중에서도 양측 당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세부 분야별로 영향을 받는 정도와 행태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적으로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남북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급성과 중요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분야에서 남북 교류협력이 비교적 생명력을 보여 주었던 분야가 스포츠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스포츠부문의 교류협력에 대한 북한당국의 긍정적인 인식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강점을 과시하고 체제 선전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포츠분야의 교류가 남북관계의 해빙기를 여는 돌파구 역할을 종종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

첫째, 남북관계 회복과 교류에 있어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스포츠의 유용성 가운데

1) 김동선, 「긴장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는 남북 스포츠교류」, 민족화해, 2016, p.7.
2) 임강택, 「남북교류 협력의 재조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5, p.251.

순수성과 공감성은 스포츠의 가장 큰 가치이다. 즉, 사상과 이념, 국가와 민족 등을 초월하는 스포츠의 순수함과 대중적 공감성의 가치는 물론 공정한 규칙 아래 상호작용하며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특성을 갖는다. 스포츠는 또한 비언어적 소통기능을 가지며 상호이해와 화합 증진의 보편적 가치를 내재함으로써 남북 간 신뢰의 토대를 구축하기가 수월하다.

둘째, 스포츠는 탈정치적 성격이 분명하여 효율적으로 국면을 극복하고,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정책 수용도가 높다는 점과 이로 인해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다.

셋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과정이 타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단계나 실행에 있어 절차와 과정이 간단명료하며 일반인들의 참여가 매우 쉽다는 점이다.

넷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갖는 남북 간 실질적 이익창출이 파급적이다. 일례로 국제스포츠 이벤트에 남북한 단일팀으로의 참가는 대외적으로 남북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 산출되는 효과가 크다.

다섯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참여범위가 매우 넓다는 장점을 갖는다. 직접적인 스포츠 활동의 접촉은 물론 스포츠용품 지원으로부터 공동개최, 공동입장, 단일팀 구성, 전지훈련 지원 등에 이르기까지 교류협력의 기회와 분야는 다양하다. 경기 외적인 분야에서도 스포츠 중계, 생활스포츠분야의 협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깊숙하게 침투할 수 있다. 또한 순수 민간단체가 교류협력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기 때문에 정치성을 배제한 교류협력이 가능하다.

여섯째,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국제 스포츠대회가 다양하게 존재함으로써 교류협력의 기회가 많고 구체적이며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다. 국제적인 표준과 규정이 존재하며, 다수의 국제 스포츠협회에 남북한이 모두 가입되어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국제적 조직에 의해 남북한이 중재될 수 있으며, 남북한의 교류협력을 위해 국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한의 교류협력은 정치적 환경과 남북한 특정 국면의 간섭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다. 남북이 공동으로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국제스포츠 행사가 세계 곳곳에서 개최된다는 점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기회와 환경을 제공해 준다.

그동안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주요 의제는 주로 국제스포츠 이벤트를 위한 교류협력으로 실제로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스포츠의 국제적 통용성으로 다양한 국제적 분야에서의 지지와 지원, 협력을 유도할 수 있고, 한반도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대한 관심은 남북

스포츠교류를 활성화하는 촉진제가 되고,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과정을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테스트 베드로 기능하게 할 수 있다.

일곱째, 남북한에 대한 국제스포츠계의 관심이 크다는 점도 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을 활성화하는 촉진제 역할을 한다. 국제스포츠연맹에서도 남북한 스포츠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주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다양한 국제경기를 통해 남북한은 국제기구의 틀 안에서 남북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안과 회담을 위한 대화 재개와 결렬이 반복되어 왔다. 하지만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남북한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도 충분히 마련되어 있으며, 국제스포츠기구의 협력도 적극적이며 호의적이다.

스포츠가 갖는 평화적 이미지는 세계에서의 유일한 분단지역인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하며, 이는 스포츠를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기회를 현실화하고 구체화하는데 유리한 국면을 조장한다. 북한은 대외전략 기조에 스포츠를 수단적 가치로 활용하여, 국제무대의 스포츠 활동을 위해 국가위상을 과시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정책 드라이브를 구사하는 만큼 국제이벤트에서의 스포츠를 활용한 남북교류가 가능하다.

III. 북한의 체육정책 기조와 최근 동향

1. 김정은의 체육강국 건설

북한은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그 어떤 분야보다 체육분야에 힘을 쏟고 있다. 김정은은 “축구강국, 체육강국”을 2011년 신년사에서 언급한 이후 각종 담화 및 사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체육 사업을 강화할 것을 독려하고 문화와 체육 부문을 강화해 이른바 사회주의 문명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013년 3월 4일자 노동신문은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온 나라에 체육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는 것은 사회주의 문명국 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사업”으로 “온 나라에 체육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체육부문 사업에서 일대 혁신을 안아 오는 것은 현 시기 강성국가 건설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라고 했다.

체육강국 건설은 대내적으로는 애민사상 및 대외적으로는 체제 위상강화를 염두한 통치이념이자 정치적 수사의 의미로 체제 안정과 결속력 강화의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3대째 세습되는 핵 도발과 실험 강행 등으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북한에 대한 제재가 심화됨으로써 고립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은 체육강국 건설을 통해 대외적으로는 국가위상을 만회하고 대내적으로는 이를 체제결속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국면을 타개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5년 동아시아 축구연맹 축구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북한 여자축구선수들을 공항까지 직접 마중 나가 선수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축하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으며, 각종 체육시설의 확충과 6개 도에 체육대학의 건립을 지시하기도 하였다. 현재 능라도와 양각도 경기장을 비롯하여 평양 빙상장, 평양 골프장, 삼지연 스키장, 강계 톨러스케이팅장 등 평양을 중심으로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를 지원하고 있다.

적극적인 체육정책의 영향으로 국제 스포츠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북한 선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역도, 유도, 체조, 탁구, 여자축구 등 다양한 종목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보이고 있고, 특히 역도는 북한이 세계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북한에서 역도는 당으로부터 전폭적인 지원과 혜택을 받는 인기종목으로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영재교육 방식을 통해 육성되므로 비교적 우수한 인력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실제로 2012년 런던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들 선수들에게 노력영웅 칭호와 함께 국가훈장을 수여하고 아파트와 고급 승용차 등을 선물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역도와 함께 레슬링도 북한이 국제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다. 체조 종목의 리세광 선수는 우리의 양학선 선수와 강력한 경쟁자로 국제경기에서 격돌을 벌일 만큼 세계적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 도마 종목의 강자로 부상하였다.

한편, 2015년 동아시아연맹컵 축구대회에서 우승한 북한의 여자축구선수단 역시 세계 최강으로 평가받고 있다. 동년 7월 러시아 카잔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의 김국향 선수의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경기 금메달 수상은 대회 42년 역사상 처음으로 나타난 성과로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계스포츠 종목에서는 북한 선수들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동계종목 특성상 고가의 수입 장비와 시설을 필요로 하며 훈련과 실전을 위한 최상의 얼음판 등의 환경을 조성하고 유지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경제적 어려움이 동계종목의 국제대회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북한 주민들에게 있어 동계스포츠는 전통적으로 매우 인기가 높은 종목이며, 특히 피겨스케이팅은 북한 내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대회를 개최할 만큼 북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어 점차 두각을 나타낼 여지는 있다.

2. 체육강국 건설에 따른 최근동향³⁾

북한은 체육강국 건설을 위해 2012년 11월 4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국가체육지도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을 골자로 하는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하고,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 대해서 “체육의 대중화, 체육과학기술 발전, 체육인재 양성, 체육사업 지원 등 전반적 체육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 지도하게 된다.”며 도, 시, 군과 군경기관에 설치된다고 소개했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는 ‘체육’을 담당하고 있지만 내각에 소속돼 있지 않고 국방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 체육정책을 지도·통제·관장하고 당의 지도 아래 대내외 체육경기를 조직하며 각종 스포츠행사 개최 및 인민체력검정 실시, 우수선수 발굴이 주요 업무이다. 통일부와 전문가들에 의하면 국가체육지도위원회에 당·군·근로단체의 고위급 핵심 인사들이 광범위하게 포진되어 있으며, 이는 당 32명의 중앙위 정치국 핵심 파워 엘리트보다 많은 37명의 파워 엘리트로 국가체육지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스포츠과학 연구시설이 들어서고 첨단 스포츠기기가 개발되는 등 구체적인 성과가 보도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7월 12일 평양체육단이 올해 완공한 체육과학연구 기지의 과학정보연구실을 소개했다. 이 연구실은 인터넷으로 스포츠자료를 검색하고 전산자료를 볼 수 있는 전자열람실, 운동선수의 신체검사와 피로해소를 돕는 기능검사실, 스포츠 영상자료를 보며 토론할 수 있는 시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아울러 신문에서는 북한에서 체육과학원이 스포츠과학 연구를 총괄하며 체육과학연구소, 체육영양학연구소, 체육기자재연구소 등이 부문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김정은은 최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꼴로 체육경기를 관람했다. 북한 언론에서도 체육 관련 보도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조선중앙TV와 노동신문 등의 매체들은 5월부터 스포츠 코너를 따로 만들어 국제 및 국내 경기들을 매일 중계하고 있다. 북한 언론에서 스포츠섹션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김정은 체제에 들어 전례없이 지난 9월 개최된 평양 아시아클럽대항 역도선수권대회에서 최초로 태극기 게양과 애국가가 연주되었으며, 아울러 조선중앙TV는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동아시아연맹(EAFF) 축구선수권대회 여자부 남북 대표팀의 맞대결을 중계하며 득점과 함께 태극기와 인공기 이미지를 나란히 내보낸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2년 11월 15일 보도에 “북한과 중국이 14일 평양에서 ‘2013년 체육교류

3) 김흥태, 『북한의 체육강국열풍과 남북체육교류전망에 대한 토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pp.56~65.

의정서”를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황해북도 사리원시를 비롯한 지방에서 체육시설의 리모델링 또는 건설이 본격 진행되고 있고 평양 시내 곳곳에 롤러스케이팅장, 배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등을 갖춘 체육공원이 세워지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스포츠를 통한 활발한 대외교류도 전개되고 있는데 일본체육대학 소속 대표단 60여 명이 2012년 11월에 이어 2013년 11월에도 북한을 방문해 북한의 대학생들과 레슬링, 유도, 축구 등의 경기를 벌이기도 하였다. 앞서 4일에는 일본 체육단체인 체육평화교류협회가 평양대리사무소를 개설하기로 북측과 합의했었다.⁴⁾ 김정은 위원장은 축구인재 양성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해외 축구감독 초빙 및 유럽으로의 축구유학 파견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평양방송은 최근 올해 1월에서 10월까지 북한이 60여 개의 국제체육대회에 참가해 360여 개의 메달을 땀다고 보도한 바 있다. 최근 김정은의 지시로 기마중대 훈련장이 근로자와 청소년의 체력단련을 위한 승마장으로 변하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선군’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례적으로 군대시설을 체육시설로 바꾸는 사례까지 등장한 것이다.

2월 27일 조총련 기관지 조선신보에서 “최근 조선을 관광하는 외국인들의 수가 늘어나 관계부문에서도 새로운 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나라의 체육에 호가들이 조선의 축구, 농구, 배구 애호가들과 시합을 하는 것을 중심으로 명성지도 관광하는 상품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에는 마식령스키장을 통한 외국인 관광객 본격 유치사업에 착수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보도했다.

‘체육강국 건설’ 정책으로 변화하는 북한 체육의 양상은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과 통일 인프라 구축에 긍정적 의미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 안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체육과학기술과 대중화를 통한 체육열풍 확산에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주의 강성대국을 건설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⁵⁾

IV.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전개와 평가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평화적 통일의 당위성과 삶의 질을 제고시켜 완전한 통일을 지향한다. 역대 정부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에 대한 정책 기조와 방향 및 전개가 한반도 평화분위기

4) 『연합뉴스』, 「북한·일본 체육대학, 학술·체육교류 협정」, 2013. 11. 5.
5) 통일부 정세분석국, 『북한 신년사 특징 및 평가』, 2014.

조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평가를 하고 이를 통해 향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1960~80년대: 대북 반공정책으로써의 남북 스포츠교류협력⁶⁾

1963년 남북 체육회담이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스포츠분야와 종목에서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도모되었으나 남북체제 간 정치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상호 자율적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1979년에는 평양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협의를 위해 판문점에서 4차례에 걸친 남북회담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애초의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접근과 서로의 이견으로 인해 회담은 결렬되었으며, 이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남북 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 그 행보를 같이하게 된다. 분단 이후 남한의 대북정책 기조는 반공주의를 기반으로 하였다. 1960~70년대의 박정희 정부는 이러한 반공을 근간으로 남북문제 제반을 통치권 강화와 집권 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목적이 다분하였다.

1980년대 초 쿠데타에 의해 집권한 전두환 정부는 최단 기간의 대내외적 정권의 지지와 정통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까닭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지원을 얻어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성사시키고자 주력하였다. 88서울올림픽 유치계획은 박정희 정부 말기인 1979년 10월 8일 처음 발표되었는데, 그로부터 18일 후 10·26 사태로 중단되었다.

전두환 정부에 들어와서 서울올림픽 유치사업을 재추진, 성사 이후에는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최대과제로 내걸고 통치의 정당성을 찾았다. 군사정권 이미지에서 탈피하고자 프로야구 또한 도입하는 등 일명 스포츠 붐을 조성하였다. 제5공화국의 남북 스포츠교류 정책은 근본적으로 남북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라 정권의 대내외적 정통성 확보와 국제적 이미지의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 전개됨으로써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한계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된다.

북한도 이 시기에 김정일 후계체제의 공식화를 선언함으로써 권력승계에 대한 정당성 확보가 절실했으며, 당시 아웅산 테러사건으로 실추된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를 개선할 목적으로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을 활용하였다.

1980년대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1984년 LA올림픽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그해 3월과 5월에 연이어 개최되었으나 단일팀 구성에 실패하였다. 1988년

6) 김동선, 「역대 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정책 평가」,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6호, 2005, pp.3~13.

서울올림픽에서의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체육회담이 사마린치 당시 IOC 위원장의 중재로 스위스 로잔에서 개최되었으나 역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담이 결렬된 바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 남북 동포 간 상호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7·7선언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남북 간의 실질적 교류협력은 성사되지 못하였다.

1986년 서울에서 개최된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 하계올림픽은 세계적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국제경기로서 남북 간 관계를 개선시키고 세계에 한반도의 평화적 분위기를 천명할 수 있는 기회였으나 시기적으로 남북 모두 서로의 체제강화를 목적으로 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 및 정치적 상황의 타개에 기여하지 못한 채 한계를 드러냈다. 즉, 교류협력 실행이 남북 각 정권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서로의 체제경쟁에서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한 이념 대결의 도구로써 이용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후 남북 간 교류협력은 이와 비슷한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2. 1990년대: 대북 수용정책으로써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김영삼 대통령은 문민정부라는 자긍심과 체제우위의 신장된 국력을 바탕으로 강력한 정책적 기초를 전개하였다. 노태우 정부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보완과정을 거쳐 완성된 김영삼 정부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공식 통일방안이다.

1990년대 북한의 경제침체와 국제적 고립,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 등으로 남북관계는 여전히 경색 일로를 걷고 있었으며,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에 있어서도 북한은 정치적 상황에 따른 전술적 차원의 접근으로 일관하였다. 또한 협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회담의 지연, 취소, 제의 등 전형적 화전양면 전략의 회담태도를 반복하기도 하였다. 남한 역시 여전히 체제 경쟁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이러한 서로의 태도는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경직시키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평가된다.

국제스포츠 경기에서의 남북 단일팀 구성, 체육지도자 상호교류 등 적극적인 교류를 추진하였으나 실질적인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고,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제안이나 합의내용들도 진실성이 결여된 비현실적 요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회담의 자율성이 배제된 채 정치적 논리에 종속됨으로써 ‘협상을 위한 협상’의 한계가 있었다.

스포츠교류 사상, 최초로 남북 단일팀이 구성되었던 1991년 일본 지바에서 개최되었던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와 포르투갈에서의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는 스포츠가

갖는 상징적인 효과가 극명하게 발휘되었다. 하얀 바탕의 하늘색 한반도 지도가 그려진 한반도기가 사용되었는데 이후 한반도기는 남북단일팀으로 경기에 참가할 때나 남북공동으로 이루어지는 행사에 통일민족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다. 남북 화해와 협력의 증거이자 한민족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한편,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인식시키는 이벤트였었다.

단일팀 ‘코리아’는 남북 간 화해와 평화의 상징으로 국제사회에서 찬사를 받았다. 사실 그 이면에는 북한이 남한의 유엔 분리가입을 방해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에 의해 단일팀이 의도되고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정치적 종속화와 딜레마를 잘 보여준 예라고 할 수도 있다. 남한정부 역시 남북관계에 있어 당시 탈냉전기에서의 관계우위를 선점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이루어졌으며, 중앙정부가 만든 틀과 방향에 의해 회담이 이루어짐으로써 결국 남북 교류협력은 기존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그러나 1991년 북한 유도선수 이창수의 귀순 이후 북한의 부정적인 태도로 인해 스포츠 교류는 사실상 중단되었다. 1997년 국제스포츠연맹은 북한 IOC 측에 남북한 긴장 완화를 위하여 스포츠 교류를 제안했고 1998년 9월 특사를 파견하여 축구, 탁구, 배드민턴 종목에 대한 교류 협의를 주선하고자 북한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결국 스포츠 교류는 성사되지 못하였다.

3. 1990년대 말~2000년대:

대북 포용정책으로써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김대중 대통령은 상호주의에 입각한 교류협력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향하였다. 대북 인도적 지원을 늘리고, 1998년 11월부터 금강산 관광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6월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했다.⁷⁾ 김대중 정부의 이른바 ‘햇볕정책’의 추진 이후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중앙정부의 정치적 목적에서 벗어나 민간분야에서의 실질적 교류협력이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그동안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과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1990년대 후반 북한의 핵문제로 인한 한반도의 긴장국면을 완화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 포용정책은 스포츠 교류협력을 비롯하여 모든 분야의

7) 박영호, 『남북관계 환경변화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전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5, p.28.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에 있어 새로운 전환을 마련하였으며, 실제로 양적·질적인 남북 간 교류협력의 확대를 가져오게 하였다. 1998년 10월 남한의 현대와 북한의 '조선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간에 '실내 종합체육관 및 체육관 건설사업 분담'에 관한 부속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오랜 기간 동안 끊어졌던 남북 스포츠 교류를 다시 이은 것은 1999년의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통일농구대회였다. 1998년 8월에는 '통일 염원 남북노동자축구대회'와 '현대 통일농구 서울·평양 교환경기' 등이 성사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되기도 하였다. 이 두 대회는 당국 간 회담이나 협상과정 없이 순수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최초의 스포츠 교류라는 데 의미가 있다.⁸⁾

2000년에는 제3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간 정기 친선축구대회와 같은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바 있으며, 2000년 제27회 시드니올림픽에서의 남북 동시입장의 성과를 이끌어 내기도 하였다. 미국의 한 매체가 2016 리우올림픽 개막을 맞아 올림픽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순간 20개를 선정하고 시드니올림픽에서의 남북공동선수단 입장을 그중 하나로 소개⁹⁾할 만큼 '남북 공동입장'은 파급적인 상징성을 갖는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남북관계의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 정책'의 정책적 기조 아래 남북 스포츠 교류가 전개됨으로써 김대중 정부에서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사업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었다.¹⁰⁾ 남한의 남북회담본부에 따르면 과거 노무현 정부는 5년여의 집권기간 동안 북한과 171차례에 걸친 회담을 했다.

스포츠분야에서는 국제경기대회에서의 남북한 공동입장 문제 협의를 위해 체육회담 실무접촉을 개최하였다. 2002년 제14회 부산아시아경기대회, 2003년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 2004년 제28회 아테네올림픽 참가 문제와 관련해 실무문제를 협의하고 이후 2005년 말부터 2008년 2월까지 2008년 베이징올림픽단일팀 구성 및 남북응원단 참가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접촉을 개최한 바 있다.¹¹⁾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2008년 베이징올림픽 경의선 열차이용 남북공동응원단 파견을 합의한 바 있다. 이후 남북총리회담(2009. 11. 16)에서 합의한 1차 실무접촉(2009. 12. 28)을 통해 응원단 규모, 이용열차, 운행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이어 2차 실무접촉에서는 응원단 규모(남북 각각 150명씩) 300명, 응원단 개·폐회식 참가 등에 합의하고 '2008년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남북응원단 참가를 위한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관계 경색국면이 조성되면서 이전의 베이징올림픽 관련

8) 박광호,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류정책 환경변화와 정책변화 전망」, 민족통일체육연구원, 2008. 6, p.31.

9) 『자유아시아방송』,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최고 감동』, 2016. 8. 10.

10) 김홍태·김동신,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체육교류협력의 평가 및 과제」,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0, pp.3-19.

11)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통일문제이해』, 2016, p.79.

합의사항은 물론 2000년 시드니올림픽 이후 교류협력의 연속성을 갖는 개·폐회식 공동입장이 무산되고 말았다.

당연한 이치이지만 스포츠 교류협력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역시 남북한이 정치적으로 우호관계일 때이다. 2002년 서울에서 남북 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되었으며, 같은 해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남북 공동응원과 남북 태권도시범단 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2003년에는 대구에서 개최된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대규모 북한선수단과 응원단이 참가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성사됨으로써 한민족의 저력과 평화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갖게 하였다. 2004년에 개최된 아테네 올림픽 개막식에서는 남북선수단이 공동으로 입장하기도 하였으며, 2005년에는 서울에서 남북통일축구대회가 개최되는 등 다양한 종목과 분야에서의 스포츠 교류가 이루어짐으로써 남북 간 교류협력의 동력을 스포츠 교류를 통해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이 시기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성과는 남북 간 교류협력이 양방향 교류형태로 전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 방점을 둘 수 있으며, 스포츠분야에서의 교류가 타 분야와의 교류와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도 큰 성과라고 평가된다.

4. 2000년 말~현재:

대북 조건부 상호주의로써의 남북 스포츠교류협력¹²⁾

이명박 정부의 대북노선은 노무현 정부의 '민족내부의 특수관계'와 상대적인 개념의 '보편적 국가관계'로 정의된다. 따라서 상호주의를 표방하며 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거론함으로써 북한의 반발을 초래하게 되고 남북관계 및 스포츠 교류협력은 북한의 핵문제와 대북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의 영향에 따른 관계 경색으로 포괄적인 교류협력의 진척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3월에 제주도에서 열린 2008년 아시아 시니어레슬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15명이 참가한 바 있다.¹³⁾ 또한 4월에 2008년 아시아 유도선수권대회에 북한 남여선수 7명이 참가, 2003년 대구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이후 북한 유도팀의 첫 남한 방문이었다.¹⁴⁾ 아울러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FIFA월드컵 출전 자격을 위한 아시아 예선전 3차전에서 2회, 최종예선전에서 1회 등 총 3차례의 남북 축구대결이 펼쳐졌다. 첫 남북대결이었

12) 김동선,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체육교류협력 평가」,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3권 제5호, 2014, pp.1~12.

13) 『연합뉴스』,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 제주도 개막」, 2008. 3. 19.

14) 『연합뉴스』,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26일 제주에서 개막」, 2008. 4. 26.

던 2008년 3월 26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경기는 원래 평양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북한이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을 무시한 채 평양에서 태극기가 게양되고 애국가가 연주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제3국인 중국에서 진행되었다. 뒤이어 6월 22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예선 2차 남북대결이 치러졌으며 최종예선에 동반 진출했다. 9월 10일 최종예선에 동반 진출한 남북은 3월 대회 때와 동일한 이유로 다시 상하이에서 경기를 가졌다.

국제탁구연맹과 국제스포츠평화교류 비정부기구인 'Peace and Sports'가 공동 주관하여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한 제1회 Peace and Sports Cup 대회에서 남북 선수들은 단일팀을 이뤄서 우수한 성적을 보여주었다. 이 대회는 국제탁구연맹이 10개국의 남자 복식조와 여자 복식조를 초청하여 치른 친선경기대회였다. 비록 친선경기이기는 하나 1991년 4월 지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단일팀 이후 20년만의 단일팀 구성으로 남자 복식은 우승, 여자 복식은 준우승하는 결과를 이루었다.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과 관련하여 2012년 1월 인천광역시의 노력으로 중국 쿤밍에서 '인천 평화컵 유소년 14세 이하 축구대회'가 1월 31일부터 2월 3일 사이에 개최되었으나 북한 팀이 경기불참을 선언하며 성사되지 못하였다. 또한 이명박 정부 이전에 합의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관련 사항이나 사업들도 거의 모두 무산되고 기회요인들도 모두 상실되었으며 단절상태에 이르렀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근간으로 드레스덴 구상과 통일대박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등 일련의 통일정책을 견지하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모색하고 있었다. 드레스덴 구상의 실천적 이행방안으로써 '남북한 스포츠 교류협력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을 권고했었다.¹⁵⁾

지난 4월 1일 북한은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을 한국에 전격 파견했다. 남북한이 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연이은 미사일 실험과 핵 위협으로 국제적으로도 따가운 눈총을 받는 등 대내외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달고 있는 와중에 여자 아이스하키 선수단이 '평창 동계올림픽'의 테스트 이벤트로 4월 2일부터 8일까지 열린 대회를 위해 방한했다. 같은 달 2일에는 남한의 여자축구 대표팀이 평양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안컵 예선 B조 경기 참석을 위해 평양으로 출국하여 27년만에 남한 축구대표팀의 방북 경기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4월 5일, 남북한이 각각 상대국가에서 경기를 치르고 또 우승함으로써 강릉에서는 북한 애국가가, 그리고 평양의 김일성경기장에서는 개장 이래 최초로 태극기 게양 및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경기 당일 새벽 북한이 함경남도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었으나 스포츠경기는 예정대

15) 김동선, 「드레스덴구상의 실천적 이행방안으로써 남북한 스포츠교류협력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3권 제6호, 2014, pp.41~50.

로 진행되었다.

이번 스포츠 교류는 개성공단 폐쇄 이후 오랜만에 성사되었던 남북교류였다. 국제대회 참가를 위한 선수단 교차방문 형식으로 이루어진 교류이기는 하였지만, 장차 향후 남북관계에 긍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것인지 그리고 북한 선수단의 평창올림픽 참가로까지 연결될 것인지에 대해 성급한 기대감마저 갖게 할 정도로 고무되었다.

정부는 남북의 교차방문 교류에 대해서 미리 예정된 국제스포츠 행사이고 국제관례에 따라 북쪽 선수단의 방남과 우리 선수단의 방북을 승인한 것일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이번 교차방문 교류 추진과 성사는 남북이 직접 접촉하지 않았고 각각 대회를 주관한 국제아이스하키연맹과 아시아축구연맹을 통해 선수단 방문 통보와 신변안전 보장 등의 절차가 진행되었다.

현재 남북관계에 대한 국제스포츠조직의 관심과 지원을 받아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의 참가 자체만으로도 평창동계올림픽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16년 7월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전화인터뷰에서 리용선 조선올림픽 부위원장은 “통일에 이바지되는 일인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올림픽에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2017년 2월 21일 삿포로 동계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한 북한 장웅 IOC위원도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긍정적으로 언급했고, 내년 9월 평양에서 개최되는 제20회 국제태권도대회에 한국선수를 초청하는 데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특히 남북 스포츠 교류는 IOC, FIFA, IF 등의 국제기구의 중개역할로 성사가 가능할 수 있다.

남북 스포츠 교류 과정을 고찰해 볼 때, 남북 스포츠 교류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기는 남북이 정치적으로 원만한 상황에서였으며 스포츠 교류의 활성화는 정치적 상황이 결정적으로 작용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치적인 환경에 절대적 영향을 받는 남북 스포츠 교류가 현재에 이르기까지 명맥을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는 스포츠가 갖는 비정치성과 순수성의 기능적 역할이다.

그러므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정치적 상관성과 종속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스포츠 종목과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 또한 향후 국제스포츠이벤트 교류협력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경색국면의 활로 개척을 위한 출구전략(exit strategy) 그리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관계 재정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V.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 추진과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다면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통일에 대한 당위성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반드시 인식해야 할 사실은 한반도에서의 통일은 우리가 당대에 반드시 이루어 내야 할 역사적 과제이며 의무라는 것이다.

1.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추진기조¹⁶⁾

첫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정부정책의 의제화(agenda)를 추진한다. 다방면에서의 교류협력 촉진이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정착 및 공동체 구현의 수단적 가치로 작용될 수 있다. 관계 및 민족동질성 회복과 관련한 파급효과의 확산에 매우 유용한 스포츠 교류협력 분야가 대북정책의 중요한 독립적인 정책으로서 수행되는 정책 의제화가 필요하다. 타 분야에 비해 스포츠는 보다 많은 시너지 효과를 창출한 선례와 함께 대중적 접근성에 기인하여 그 파급효과를 확산하는 데에도 실효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둘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정례화의 기반조성을 추진한다. 교류협력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제도개선이 요청된다. 경직된 남북관계와 이로 인한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위축을 한시적 현상으로 규정하자는 것이다. 이 시기를 향후 재개될 교류협력에 대비한 준비기간으로 정하여 법률 및 제도 그리고 재정 등을 포함하는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을 구축하고 활성화 및 정례화에 대비한다.

셋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에 대해 선도적이고 선제적인 접근전략을 추진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출구전략의 일환으로써의 의미와 함께 향후 주요 국제 이벤트의 단일팀 참가 이슈에도 선도적·선제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제안한다. 이때 국력과 경기력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현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넷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에 관한 체육계 주도의 정체연계(政體連繫) 원칙이다. 스포츠 분야의 주도적이고 독자적인 역할 수행과 정부의 제도 및 재정 등의 지원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파급효과를 얻는다. 교류협력 대상이 되는 북한의 특수성에 기인하여 정체분리에 따른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으므로 남북 체육기구나 조직에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교류협력에 관한 권한과 역할을 위임하고, 정부 유관단체나 조직에서는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의 연계를 확고히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체육계 주도의 정부지원시스템을 조기 정착시킨다.

다섯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지속가능성 지향 원칙이다. 지속가능한 남북 스포츠

16) 문화체육관광부,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체육교류백서』, 2016, pp.277~371.

교류협력을 실천함에 있어서 교류협력의 창조적 계승을 전제한 연속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남북관계의 근원(根源)에 따라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교류협력 분야에서 최소한의 교류협력 모멘텀이 유지·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2.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추진과제

첫째, 남북 스포츠교류협력을 주도할 전담 거버넌스의 구축이 요청된다.¹⁷⁾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 제반 지원 법령 및 제도의 정비와 제정은 물론 민간 및 전문 체육분야로 권한 위임(empowerment)된 교류 전담기구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를 근간으로 남북 공동 상설협의 기구가 조직·운영되어야 한다. 그래야만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스포츠 교류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 가령 정부부처와 각 종목별 단체, 시민사회 단체 등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남북 체육교류협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만들어 남북 간 실질적인 공조체제 확립과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토록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협력은 중앙정부가 갖는 경직성과 한계성을 보완할 수 있는 교류협력의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공동관심사에 대한 호혜적 교류협력이 가능한 사회문화분야와 인도적 지원 등의 추진은 보다 실천적인 남북 교류협력 유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 교류협력은 작은 교류협력의 유형으로 유용한 동질성 회복에 많은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일 것이다.¹⁸⁾ 그동안 경색국면으로 지방자치단체 교류가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교류재개에 대한 준비는 진행돼 왔다. 강원도(1998. 12. 31 제정, 110억원 조성), 광주(2001. 3. 2 제정, 10억원 조성), 경기도(2001. 11. 9 제정, 227억원 조성), 전라남도(2003. 6. 5. 제정, 5억원 조성), 서울(2004. 7. 20. 제정, 200억원 조성), 인천(2004. 11. 8 제정, 85억원 조성), 세종시(2015. 7월 제정) 등 광역시·도가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기금도 조성해 교류사업에 대비하고 있다.¹⁹⁾ 이들 지방자치단체들의 '지자체남북교류실무협의회' 활성화를 통해 정부와 지자체와의 원만한 공조체제 구축을 통한 시너지 창출이 요청된다.

셋째, 전략적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요청된다. 경평축구 부활과 남북한 도시 대항 축구교류

17) 김동선,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남북 교류협력』, 민화협 정책위원회, 2015, pp.115~130.

18) 김동선,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제20호, 2013, p.18.

19)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통일문제이해』, 2016, p.89.

전을 위한 접근으로 통일 축구 및 농구 재개를 통한 교류사업을 시행한다.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은 대승적·장기적 측면에서의 점진적 접근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교류를 실현시켜야 한다. 먼저 상호 교류가 용이한 분야에서 출발하여 단계적·점진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하에 접근이 쉬운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가령, 북한과의 상호 전략적 종목인 축구, 탁구, 농구, 마라톤, 씨름, 레슬링, 태권도, 권투, 유도, 양궁, 사격 등과 같은 종목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한 접경지역 일원의 평화적 이용을 통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도 포함한다.

넷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화 전략이 요청된다. 이벤트성 행사 위주가 아닌 인적 교류협력과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그리고 학술분야와 청소년 및 전통 민속경기를 포함하는 생활체육 등의 교류협력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에 중요한 역할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실천적 방안으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남북한 도시들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상호이해와 신뢰의 기반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령, 문화관광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는 개성과 경주, 원산과 강릉, 그리고 공업도시의 특성을 갖고 있는 포항과 김책, 수도인 평양과 서울, 거대 배후도시들의 관문이자 항만도시로서의 특성을 갖고 있는 인천과 남포 등 서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는 도시들 간에 자매결연하고 현안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협약을 맺어 교류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²⁰⁾

다섯째, 지속가능한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체육회담 재개 및 정례화 추진이 요구된다. 스포츠 교류협력의 안정화, 활성화 그리고 정례화를 위한 남북한의 포괄적인 조약(treaty), 내지는 동일한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협약(convention) 및 협정(agreement) 또는 의정서(protocol) 등의 체결 모색이 요청된다. 이를 위해 가급적 빨리 남북 당국 간 스포츠분야 대화채널(남북체육교류협력추진위원회)을 구축하고, 이 대화채널을 통해 “남북체육교류협력 합의서” 체결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스포츠 교류협력이 정치·군사적 경색국면 등 외적인 요인에 의해 위축되거나 단절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동서독도 1975년 4월 “스포츠교류 합의서”를 체결하여 정치적 상황에 관계없이 체육 교류협력이 지속되었다.

일곱째,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에 관한 인적·물적 교류 합의서 미비로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고 북한은 언제든지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중단시켜도 된다고 생각하므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법적·제도적 장치는 IOC, OCA 등 제3자가 보장 혹은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하여 북한이

²⁰⁾ 이상준, 「동서독 도시교류의 경향과 시사점」, '6·15와 햇볕정책' 학술회의, 2016.

쉽게 파기하지 못하도록 함이다.

3.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추진사업

가) 단기 사업

- ① 2018평창동계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 공동응원, 공동입장
- ② 남북태권도 시범교류(겨루기, 품새)
- ③ 유네스코 문화유산 공동등재 기원 남북 씨름대회
- ④ 남북 통일축구(경평축구 부활)

나) 중장기 사업

- ① 북한의 취약계층(유아, 청소년, 부녀자)의 체격·체력 향상을 위한 체육용품(기구, 용품, 의류)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경기력 향상을 위한 스포츠과학 기술과 장비를 제공하고, 남북체육용어사전 편찬(경기용어, 체육일반, 체육학술용어)을 편찬한다.
- ② 중앙부처, 연구기관, 각계 연구자들이 발간한 각종 북한 스포츠 관련 자료, 남북한 국제경기대회자료, 남북체육회담, 동서독 스포츠 교류협력 등의 자료를 축적한다.
- ③ 통일 이후의 남북통합을 위한 학교체육, 생활스포츠, 엘리트스포츠,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매뉴얼을 작성한다.
- ④ 북한의 변화는 문화예술체육 교류에서 출발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활동했던 민간단체들을 재정비하여 향후 대폭적이고 우후죽순적인 교류협력에 대비한다. 교류협력의 추진방향은 교류협력에 대해 북한이 주저하거나 의심을 갖지 않도록 민간차원에서 비정치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설립에 필요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 설립·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는 중앙부처 산하 '남북체육교류협력진흥원(가칭)'의 설립이 필요하다. 진흥원은 전략적인 스포츠 교류협력의 수립과 집행, 공공차원의 대규모 스포츠 교류협력 사업 추진, 민간의 스포츠 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 관련 정보 노하우의 축적과 분배, 과당 경쟁에 대한 중재·조정, 사업 성사 보장을 위한 대북 협상, 스포츠 교류협력 전문인력 양성 등의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도록 한다. 통일된 후에는 남북당국 또는 주민 간 체육통합을 위한 활동을 주도하는 '남북체육통합진흥원(가칭)'으로 전환하도록 한다. 정부는 제도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후원자의 역할을 하고 진흥원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호 접근이 수월한 부분부터 선도적 접근을 통한 추진(先易後難), 체육계 주도 정부지원 체계 확립(先民後官), 정례화를 통한 교류협력의 활성화 및 안정화 지향(先供後得)의 교류협력을 하도록 한다.

- ⑤ 해외동포재단과 협력하여 해외동포나 한인체육회 네트워크를 통해 제3국에서의 스포츠 교류협력 행사를 추진한다. 북한은 제3국(중국, 일본 등)에서의 스포츠 교류협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생각한다.

V. 맺는말

‘통일’은 국민에게 주어진 책무이자 현실이자 미래이다.²¹⁾ 70여 년 동안의 남북한 분단으로 인해 다방면에서의 남북한 간 갈등과 이질화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동일한 규칙과 경쟁 속에서 서로의 몸으로 부딪히며 말하는 스포츠의 특성상 그동안의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이 보여준 상징성과 파급효과는 통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효과적이고 현실적인 접근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의 정치적 상관성과 종속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남북 접촉은 광범위한 분야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스포츠를 통한 남북 교류협력은 평화적 통일 기반을 확립하는 데 그 기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정권 안정화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체육강국 건설’을 표방하고 통치이념으로써의 체육을 강조하며, 체육과학기술 발전과 대중화를 통한 체육열풍 확산에 열의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북한의 환경 변화는 현 남한정부의 대북 기조와 맞물려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확대의 가능성을 기대하게 한다.

교류협력의 재개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재개 필요성이나 그 과정에 대한 고민 못지않게 남북교류가 재개되면 어떻게 추진할 것이며, 지향해야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예상과 준비가 필요하다.

남북한 간의 정치적·군사적 불안정성은 당분간 지속될 수도 있고, 정치적 고려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남북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치·군사적인 상황과 연결시킨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가 최소화되어야 한다. 물론 대규모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정부 간 교류협력 사업은 남북한 관계의 진전 정도, 북한의 수용태도 및 능력

21) 정복규, 『통일 신문』, 2017. 6. 5, p.3.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민간단체의 교류사업은 자율적인 책임하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류협력에 대한 정부의 규제나 통제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남북관계와 교류협력을 논의할 때, 동서독 간의 교류협력의 선례와 중국과 대만의 양안관계(兩岸關係)에 대해 주목한다. 중국과 대만의 사회문화 교류 변천 현황 및 성공요인의 분석에 따라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에 적용할 수 있는 정민분리(政民分離), 추통존이(求同存異), 국력차이(國力差異) 반영, 반관반민(半官半民) 기구의 활용, 민족주의(民族主義)²²⁾ 원칙 등이 있다. 지금으로서는 “일치하는 점은 취하고, 의견이 서로 다른 점은 잠시 보류한다.”라는 추통존이(求同存異) 원칙에 따라 남북한 상호 접근이 용이한 ‘스포츠’가 우선적·선제적으로 교류협력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

‘통일’은 다양한 편익을 줄 수 있다. 전쟁위험을 해소해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 올 뿐 아니라 내부의 이념적 대립이 종결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론결집을 가능케 할 것이다. 또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 및 지하자원 요소가 결합해 시너지 효과가 창출됨으로써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게 될 것이다. 통일한국의 실현은 해양과 대륙 진출의 요충지에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을 살려 태평양과 유라시아를 연결하는 물류와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부상할 것이다.

즉, 통일은 분단에 따른 유·무형의 피해와 비용과 폐해를 없애고 훨씬 큰 새로운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국가와 사회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도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반도를 태평양 시베리아 유럽과 연결하고 동북아 지역에서의 평화 및 공동발전을 선도할 국가로 발전시켜 국제적 위상을 높여줄 것이다. 이는 통일 후 독일이 유럽의 중심국가라는 위상을 확보하고 유럽통합을 가속화해 유럽 경제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 결과²³⁾에서 충분히 유추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Sports has the power to change the North Korea’

22) 대한민국싱크탱크미래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남북사회문화교류 추진전략 연구』, 통일부, 2013.
23)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통일문제 이해』, 2016, pp.13~16.

참고문헌

- 김동선, 「역대정부의 남북스포츠교류정책 평가」, 『한국체육학회지』, 제44권 제6호, 2005.
- 김동선, 「남북한 지방자치단체 간 스포츠교류협력을 위한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2권 제2호, 2013.
- 김동선, 「남북한 스포츠교류를 통한 화해와 평화의 인천아시안게임 추진방향」, 인천발전연구원, 2014.
- 김동선, 「드레스덴구상의 실천적 이행방안으로써 남북한 스포츠교류협력을 통한 민족 동질성 회복방안」,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3권 제6호, 2014.
- 김동선,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과 남북체육교류협력 평가」,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3권 5호, 2014.
- 김동선, 『한반도 평화통일 기반 구축과 남북 교류협력』, 민화협 정책위원회, 2015.
- 김동선, 「긴장 속에서도 지속되어야 하는 남북 스포츠교류」, 민족화해, 2016.
- 김동선,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남북스포츠교류협력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1권 제2호, 2016.
- 김홍태, 『북한의 체육강국열풍과 남북체육교류전망에 대한 토론』,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 김홍태·김동선, 「노무현정부의 대북정책과 남북체육교류협력의 평가 및 과제」, 『한국체육과학회지』, 제19권 제1호, 2010.
- 대한민국싱크탱크미래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남북사회문화교류 추진전략 연구」, 통일부, 2013.
- 문화체육관광부, 『광복 70주년 계기 남북체육교류백서』, 2016.
- 박광호, 「이명박 정부의 남북교류정책 환경변화와 정책변화 전망」, 민족통일체육연구원, 2008. 6. 13.
- 박영호, 「남북관계 환경변화와 남북교류협력의 발전전략」,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5.
- 통일부 정세분석국, 『북한 신년사 특징 및 평가』, 2014.
- 이상준, 「동서독 도시교류의 경향과 시사점」, ‘6·15와 햇볕정책’ 학술회의, 2016.
- 임강택, 「남북교류 협력의 재조명」,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2015.
- 정복규, 「통일 신문」, 2017. 6. 5, p. 3.
- 정재춘·김동선,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진단과 집중과제」, 통일준비위원회,

미간행, 2015.

통일부, 『2016 통일교육지침서』, 2016. 5.

통일부 통일교육원, 『2017 통일문제이해』, 2016.

<언론 보도>

『연합뉴스』, 「아시아레슬링선수권대회 제주서 개막」, 2008. 3. 19.

『연합뉴스』, 「아시아유도선수권대회, 26일 제주에서 개막」, 2008. 4. 26.

『연합뉴스』, 「북한·일본 체육대학, 학술·체육교류 협정」, 2013. 11. 5.

『자유아시아방송』, 「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최고 감동」, 2016. 8. 10.